

Environment NEWS

COP18,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합의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가 개최되었다. 총회를 통해 금년부터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가 개정되고,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유치도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총회에는 195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당사국총회에서는 2013~2020년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 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EU,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3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되었다. 또한 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모나코 등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 발생한 구동구원 국가의 잉여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협상회의(ADP)의 2013~2015년간 작업계획도 마련되었으며, 매년 최소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사국들은 2013년 3월 1일까지 신기후체제에 적용될 원칙, 법적 형태, 온실가스 감축 형태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별 제안서를 제출기로 했다.

한편 지난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성공적으로 인준되었으며, 이에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한국을 GCF 유치국으로 최종 인준한데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기재원 조성 워크프로그램은 1년 연장되어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장기재원 1천억 불 조성을 위해 자금조성계획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을 제19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는 2013년 11월 11일~22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nvironment NEWS

제대로 된 '한국형 야생' 체험, 어디서?

환경부가 금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생태관광 지정제'의 시범지역을 지난해 12월 선정했다. 산, 하천 등 습지나 해안, 동·식물 등 한국적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관광 잠재력이 높은 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양구 DMZ와 곡성 습지, 울진 왕피천계곡, 남해와 제주 동백동산습지 5곳이 선정되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태관광 지정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식사업 진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모두가 새싹을 보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환경부는 법무부와 MOU를 맺고 지난 한 해 동안 교도소 수용자들이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서울소년원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한 지난 시범사업은 멸종위기식물 8종 등 총 27종 5만 2천여 개체를 증식하며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국가 생물유전자원 보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었다. 수용자들이 증식한 자생식물은 수용시설의 명의로 불우이웃시설, 초중학교 등에 기부되었으며, 수용자들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재활의욕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참여기관을 7개로 확대하고, 멸종위기식물 2만 개체를 포함해 10만 개체 이상을 증식할 계획이다.



환경부, 10조 인도네시아 강 복원 사업 물길 연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칠리웅강의 오염된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의 환경정책과 기술, 그 간에 경험을 100% 활용한 시범사업이 물꼬를 텄다.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은 한국 환경부, 인도네시아 환경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약 9백만 불(US\$)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칠리웅강 본류 중 이스티끄랄 사원 주변 약 300m 구간의 하천을 2015년까지 3년 동안 복원하는 것이다. 칠리웅강은 1,100만 자카르타 시민의 식수원으로 BOD가 200mg/l 이상으로 하천의 생태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향후 약 1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13개강 복원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물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환경시장 진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nvironment NEWS

화학물질정보, 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라!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만 제공되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이 모바일 웹서비스(<http://ncis.nier.go.kr/m>)로도 제공된다. NCIS(<http://ncis.nier.go.kr>)는 국내 기존화학물질 등 4만 4천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평균 30만 명이 접속하는 국가대표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이용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부응하고자 모바일 웹서비스로 확대해 실시하게 되었다. 과학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 NCI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화학물질 정보 제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상하수도, 우리힘으로 깨끗하게!

우리나라 환경부와 방글라데시 지방정부 및 농촌개발부가 9개월에 걸친 협력사업으로 '방글라데시 4개 지역의 상하수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개도국의 환경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한국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방글라데시는 거의 대부분의 하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특히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비소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통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기업을 위한 인터넷 무료 경영진단 서비스 개시

국내 환경기업들의 경영진단을 무료로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산업체 스스로 경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환경기업 자가진단 시스템'(<http://ecodr.keiti.re.kr>)을 개발해 지난해 12월 11일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① 기업의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과, ②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역량과 경영 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결과분석, ③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에 적합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사업 연계의 3단계로 구성됐다. 이 서비스는 33,000여 환경기업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만 하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기타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nvironment NEWS

국민 대다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필요하다” 답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음식문화 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국민(83.1%)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 응답자의 87%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85.2%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2013년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해 12월 14일 ‘2013년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면서 “경기가 완만한 개선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환율과 유가 하향 안정화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환율과 유가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2%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증가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나서서 종합토론을 벌였으며 3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대내외 경제 전망에 대한 재계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해 12월 18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경영자문단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매출 증대에 기여한 ‘우수 자문위원 5인’을 선정,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우수 경영자문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해결한 자문위원 중 자문건수와 개선실적, 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은 현재 100여 명의 대기업 출신 자문위원들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노무 등 경영전반에 걸쳐 무료로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